

해외봉사활동의 양면성과 도전: 봉사여행과 개발봉사 사이*

권상철**

The Challenges of International Volunteering between Voluntourism and Development Volunteers*

Sangcheol Kwon**

요약 : 최근 급격히 증가한 해외봉사활동은 청년층이 주류를 이루며 대다수 개발도상국 지역에서 이루어진다. 1950년대 초 신생 독립국가의 빈곤 문제를 줄이기 위해 선진국 대학생이 개발도상국에 파견되며 시작된 해외봉사활동은 여러 국가에서 정부 차원의 봉사단을 만들며 본격화된다. 그러나 1980년대 신자유주의의 확대로 해외봉사활동은 민간 주도로 이루어지며 여행으로 상품화된 성격을 보이며 신자유주의, 신식민주의적 양상으로 전개된다는 비판을 받는다. 해외봉사활동의 목적을 개발봉사와 봉사여행으로 구분해 보면, 단기봉사인 경우 참가자 개인의 경험과 이력을 위한 활동으로 개발도상국에 대한 이해와 관심 없이 참가하는 경우가 많아, 대상 지역 사회에 혜택을 주기보다 오히려 동정과 우월감을 드러내는 신식민적 태도를 기르는 활동이 될 수도 있다. 대학생 해외봉사활동은 개발도상국 지역에서 주민과 직접 교류하며 상호 문화 이해와 개인 간 관계와 신뢰를 구축하는 기회로, 동정에서 글로벌 정의의 안목을 키우고 참가자들이 자신들의 입장보다 지역 주민을 중심에 두는 활동은 무형의 성과로 이어질 수 있다. 이러한 성과는 상호 관계의 중요성 인식과 더불어 개발도상국 지역 이해를 위한 노력을 기울일 때 더욱 호혜적이며 지속가능한 관계로 성장할 수 있을 것이다.

주요어 : 해외봉사활동, 국제개발협력, 봉사여행, 신자유주의, 신식민주의, 상호 관계, 지역 이해

Abstract : International volunteering has been increased to the regions in the developing countries mostly by young participants. It began during the 1950s with students from the developed countries who volunteered for developing the newly independent countries and became popular with governmental supports. Since the 1980s, private and NGO led voluntourism became prevalent in the form of commodified volunteering under the neoliberal circumstances. The individual experience and career seeking goals pay little consideration to the foreign partners and destinations. Rather participants expose attitudes to be neocolonial disparaging the poor conditions of developing regions. The youth international volunteering has advantages being able to have close contacts and cross-cultural exchanges with local partners. Perceptual and attitudinal change from compassion to global justice is prerequisite to establish reciprocal relationship leading to trust and intangible outcomes beneficial both to the participants and partners. The outcomes would be enhanced by accumulating the local understanding and knowledge of developing countries and the mutual benefits keep the relationship sustainable.

Key Words : International volunteering, Development cooperation, Voluntourism, Neoliberalism, Neo-colonialism, Reciprocity, Local understanding

*이 논문은 2015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NRF-2015S1A5A2A01009154).

**제주대학교 지리교육전공 교수(Professor, Geography Education Major, Jeju National University, kwonsc@jejunu.ac.kr)

I. 서론

최근 해외봉사활동이 대학, 기업, 단체 등의 주도로 개발도상국을 대상으로 확대되고 있다(강종안 등, 2009; 최명근·구영은, 2016). 이러한 해외봉사활동의 확대는 한국이 2010년 OECD 개발원조위원회(DAC)에 가입하며 적극적으로 공적개발원조에 참여하면서 사회적으로 해외봉사활동에 동참하는 분위기가 조성되는 동시에 해외여행이 대중화되면서 새로운 형태의 사회적 책무감을 포함하는 대안 관광이 늘어나는 것에서 해외봉사활동 확대의 원인을 찾을 수 있다. 또한 젊은 층의 경우 대학 생활 중 경험해야 할 경력으로 해외봉사활동을 고려하는 등의 다양한 배경에서 해외봉사활동의 확대 원인을 찾아 볼 수 있다(조혜영, 2015; 주성수 등, 2016; McGloin and Georgeou, 2016).

해외봉사활동은 선진국 중심의 활동으로 개발도상국을 대상으로 빈곤 문제를 경감시키기 위한 해외원조 또는 국제개발협력의 일부로 인적 파견과 교류를 통해 진행되는데 그 시작은 몇몇 대학원생의 자발적 참여에서부터 국가 차원으로 확대되고, 현재는 다양한 단체나 기관 등이 주관하는 모습으로 다양하면서도 동시에 대규모로 전개되고 있다. 한국은 2000년대부터 국제개발협력 분야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며 해외봉사활동도 더불어 활성화되어 왔다. 해외봉사는 발전 국가와 개발도상국 간의 관계를 개선한다는 동기를 가지며, 상호 문화 이해의 기회를 제공하고 개인적 경험을 통한 성장을 도모할 수 있는 활동으로 권장되며 확대되고 있다. 그러나 해외봉사활동에 대한 비판 또한 활발히 제기되는데, 봉사활동은 신자유주의 상황 아래 정부에서 민간 주도로 이전되며, 충분한 이해와 준비 없이 진행되는 상품화된 양상의 봉사여행으로 변모하고, 참가자들은 자신의 경험과 경력만을 고려하며 대상 지역에서 우월의식과 신식민적 태도를 드러내며 강화시키는 기회로 오용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한다(Devereux, 2008; Smith and Laurie, 2011; Perold *et al.*, 2013). 한국은 최근 세계 최대 봉사단 파견국이면서 아직 봉사활동에 대한 긍정적 측면만을 부각시키며 성공적 평가를 내리고 있어 비판적 안목의 접근을 통해 개선 방안을 모색할 시점에 와 있다(유인선, 2014; 박공식·전현욱, 2018).

해외봉사활동은 개인적 경험의 확대인가 아니면 세계의 빈곤을 정의적 측면에서 인식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

한 노력인가라는 양면적 특성 사이에서 다양한 양상으로 나타난다(Laurie and Smith, 2018; Schech, 2017). 이들은 서로 연계 또는 중첩되어 있는 경우도 많아 복잡한 모습을 보이는데, 이러한 복잡한 상황을 파악하여 활동을 진행 하는 것이 바람직하면서 효과적인 과정과 결과로 이어질 것이다. 이러한 고민은 일찍 해외봉사활동을 시작한 서구에서도 최근 활발히 전개되고 있어(Tiessen, 2018; Yea *et al.*, 2018), 이들을 참고로 아직 초기 단계의 한국 해외봉사활동은 세계의 빈곤과 불평등 문제에 대한 참가자들의 인식을 높여야 하는 배경 그리고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볼 필요가 있다.

이 논문은 해외봉사활동이 개발봉사에서 시작하여 봉사여행으로 변모하며 나타나는 문제점을 검토하며, 봉사 참가자와 대상 지역 사회가 모두 혜택을 보는 방안으로 논의적 측면에서 동정에서 정의로의 관점 변화, 실천적 측면에서는 상호 관계의 정립과 개발도상국 지역 이해를 강조하며 성공적 해외봉사활동의 가능성을 확대하는 방향을 제안해 보는 목적을 가진다. 이를 위해 세부적으로는 우선 해외봉사의 기원과 역사를 국제개발협력과의 관계와 더불어 간략히 언급하고 한국의 상황을 살펴본다. 다음으로 해외봉사활동이 개발봉사에서 봉사여행으로 변모하며 나타나는 신자유주의화와 신식민적 성향을 비판적으로 검토해 본다. 마지막에서는 이러한 비판에 기초해 해외봉사활동을 동정과 정의의 관점으로 구분하고, 실제 대학생 활동 결과보고서를 인용하며 정의적 측면으로의 변화 가능성을 찾아보았다. 실천적 측면으로는 참가자와 지역 주민과의 교류를 통한 상호 관계의 형성 그리고 개발도상국에 대한 지역 이해의 필요성과 방법을 제시하며, 해외봉사활동이 참가자와 지역 주민 모두가 혜택을 보는 지속가능한 방안을 제시해 보았다.

II. 해외봉사활동: 국제 개발협력과 해외 봉사여행

해외봉사활동은 국제 개발협력의 일부로 시작되어 정부의 지원으로 확대되는데, 개발도상국 발전을 지원한다는 목적은 대다수 국가에서 명시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민간단체 주도의 봉사활동이 점차 활성화되며 경력 만들기과 대안적 여행을 추구하는 봉사여행으

로의 성격 변화가 청년 대상 단기 프로그램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단기 봉사여행은 신자유주의 상황에서 봉사활동이 상품화된 모습이고, 사전 준비가 부족한 현지에서의 활동은 참가자들에게 신식민적 태도를 배양하는 계기가 될 수도 있다는 비판을 받는다.

1. 해외봉사활동의 발전과 한국의 상황

해외봉사활동은 20세기 초부터 영국 적십자사의 전쟁 구호 활동, 종교 단체의 해외 구호 사업 등으로 있어 왔지만, 본격적으로는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미발전국가의 개발이 세계의 관심사가 되고, 이들의 발전을 촉진하기 위한 국제기구(IMF, World Bank)의 등장과 유사한 노력으로 다양한 정부와 민간 차원의 노력이 겹들어 지며 확대된다. 공식적인 해외봉사활동은 1951년 호주 멜버른 대학의 대학봉사계획(Graduate Volunteer Scheme)에서 대학원생을 인도네시아에 파견하여 기술적인 지식과 훈련의 도움을 주며 시작되었다(Sobocinska, 2017). 이후 다른 국가에서도 해외봉사단을 구성하는데 영국이 1958년 해외봉사서비스(Voluntary Service Overseas), 미국이 1961년 평화봉사단(Peace Corps)을 창단해 개발도상국에서 활동을 전개한다.

해외봉사활동은 국제 개발협력과 밀접히 연계되어 이루어져 이들의 관계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선진국을 중심으로 이루어진 해외봉사활동은 1960년대부터 개발도상국의 발전을 도와준다는 목적으로 활성화된다. 여기에는 암묵적 또는 명시적으로 발전을 서구식 근대화로 정의하고, 서구 기준으로 세계를 발전과 미발전 국가로 구분하고, 발전 국가들의 과학적 진보와 산업 발전을 미발전 국가의 개선과 성장에 이용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는 사명을 가지고 개발협력과 봉사활동이 진행되었다. 즉 발전을 기술적 문제로 보고 근대화를 강조하는 접근이 주류를 이루고 있었다. 1960년대는 정부의 지원으로 많은 해외봉사 프로그램이 등장하는데 참가자는 대다수 18~25세의 청년층이었다. 당시 개발의 사고가 사회기반 시설 위주에서 점차 사회 구조 개선으로 바뀌어 가는 시점이어서 더욱 청년 해외봉사활동의 역할은 커질 수 있었다. 1970년대에 이르러는 많은 소규모 민간 자원 부문, 비정부기구의 참여가 늘게 된다. 이는 정부 추진의 봉사활동이 시민의식, 국가 등의 가치를 강조하는 것에서 점차 개인의 인식과 정체성을 높이려는 목적으로 해외봉

사활동에 대한 인식이 바뀌는 계기를 마련하게 된다.

1980년대는 신자유주의의 확산으로 발전 정책과 정부 지원이 영향을 받으며 해외 봉사 조직이 다각화된다. 또한 개발도상국의 경제 성장이 그다지 진척되지 않고 빈곤이 지속되며 신자유주의 환경 아래 봉사 참가자의 개인적 경험에 초점을 맞춘 민간 재원을 활용하는 소규모 자원 활동 조직들이 증가한다. 이 시기는 전통적으로 발전에 초점을 둔 개발도상국을 근대화시키려는 경제적 지원보다 사회 변화를 중요하게 고려하며 봉사활동도 다각화되고 관광도 일부 봉사활동을 채택하였다. 발전에 대한 변화는 근대화, 산업화의 강조에서 시민사회와 시민 참여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대학 교육에서는 글로벌서비스러닝(global service learning)이 강조되며 윤리적 관광이 대량관광에 대비되는 대안 관광으로 등장하는 시기이다. 이러한 변화는 해외봉사활동에서는 단기 중심으로 다양한 활동을 시도해 보며 개발에 유용하다는 평가로 이어졌다.

1990년대는 봉사 관련 봉사여행 단체나 프로젝트는 대다수 개발도상국을 대상으로 공동체 복지, 교육, 환경 재생, 기업 발전 사업 등으로 다양해졌다. 대다수 해외 봉사활동 참가자는 18~30세의 연령층으로 이 중 30% 전후는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 진학 이전의 시기에 해당되고, 봉사 기간은 2주에서 6개월 정도로 활동이 진행되었다. 전 세계적으로 여행과 관광산업은 젊은 층이 주요 고객으로 등장하였고 대학생 봉사활동은 그 중 가장 급격한 증가를 보였다(Wearing *et al.*, 2017).

봉사활동은 청년들에게 봉사 정신과 정체성 개발에 도움을 주고, 특히 해외에서의 활동은 다른 문화의 이해와 국제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기회로 대학에서 봉사활동을 적극적으로 의미 있는 그리고 교육적인 기회로 고려하며 확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그러나 해외봉사활동의 기회 증가, 다양한 활동 등은 긍정적이지만 봉사여행 형태로의 변화는 비판을 받는다. 우선적으로 심각하게 고민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은 대학생 활동의 경우 참가자의 역량 강화를 위해 개발도상국을 활용만 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점이다. 대학생들은 기술 수준이나 재원이 진정한 도움을 주기에는 부족해 오히려 직접적, 간접적으로 개발도상국에 피해만 끼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단기 활동은 지역 사회의 규범과 환경에 적응하기보다 원래의 생활 방식을 그대로 고수하여 개발도상국 지역에 새로운 형태의 식민주의자로 행동하는 모

표 1. 해외원조/국제개발협력과 해외봉사활동의 계보

대략적 시기	해외원조/국제개발협력 ¹⁾		해외봉사활동	
	주류 담론	주요 전략/목표	영향 패러다임	주요 내용/사건
1960년대	근대화	산업화, 경제 성장	박애와 봉사	기술 지원, 지식 이전
1970년대	기초수요, 참여	수출지향, 성장파급	개발도상국 주민 참여, 상호학습	유엔 봉사단 창립
1980년대	제도와 시장, 참여적 개발	NGO, 시민사회, 거버넌스	시민 의식 강화를 위한 봉사	상향식 개발 강조에 따라 봉사의 역할 증시
1990년대	자유무역, 시장 기반 발전	결과지향 원조, 새천년개발목표	세계 시민, 사회정의, 개인-공동체 건설 강화	개인 책무와 시민 의식 강조, 청년봉사 대중화
2000년대	민관협력, 민영화	건축, 원조 감소, 공정무역	발전, 공헌 봉사	UN 봉사활동의 가치 보고서

* Smith and Laurie(2011); Franco and Shahrokh(2015)의 내용을 합쳐 재구성.

습으로 비춰질 가능성도 있다(McGehee, 2012).

최근 해외봉사활동은 다양한 형태로 진행되는데, 이들은 봉사여행과 개발협력, 동정과 정의, 개인과 세계 등의 스펙트럼으로 구분하여 이해할 수 있다. 해외봉사활동은 그 기원에서 볼 수 있듯이 해외원조 또는 개발협력 활동의 일부로 시작되었기 때문에 이들 간의 관계를 시기별 목표와 담론으로 검토해보면 앞으로의 해외봉사활동 방향을 정립하고 효과를 높이는데 도움을 준다. 우선, 1970년대까지는 신생 독립국가의 증가와 동서의 냉전 시기로 국제개발협력이 활성화되고 경제성장 위주의 근대화 접근이 주를 이룬다. 이 시기의 해외봉사는 박애와 봉사 정신에 기초하고 기술과 지식의 이전을 중심으로 활동이 이루어진다. 정부 차원에서는 보다 체계화된 활동을 위해 해외 봉사기구를 설립한다. 1980년대에서 90년대는 대다수 제3세계들이 외채에 기반을 둔 경제 성장 정책 실패로 부채위기에 놓이게 된다. 세계화의 진척과 더불어 신자유주의적 접근이 확대되며, 발전은 물리적 기반시설 지원에서 사회적 역량 강화를 목표로 하고, 정부의 역할을 줄이고 민간 시민사회의 참여를 강조하게 된다. 해외봉사활동은 정부의 역할 감소를 보완하는 방안으로 인식되고, 이들에 의한 개발도상국의 사회적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이전의 하향식 개발을 넘어 봉사활동을 통한 지역 사회에 대한 이해와 교육, 상호 활동을 통한 역량 강화를 강조하게 된다. 2000년대에 이르러는 개발협력의 효과성에 대한 1990년대 말부터 구체화된 논의를 실천에 옮기기 위해 UN 주도로 새천년개발목표를 설정하고 결과 중심의 효과성을 강조하는 시기로, 해외봉사활동이 발전에 공헌하는 가치가 인정되며 국제적

인 활동으로 인식되어 간다.

본격적인 해외봉사활동은 식민지에서 독립한 개발도상국의 빈곤문제를 감소시키기 위한 해외원조와 더불어 선진국들의 자선 행위로 시작되어 점차 대중화되며 새로운 형태의 여행으로 확대되었다. 이러한 해외봉사활동에 대한 대중적인 확대는 신자유주의가 만연하면서 정부 차원의 해외봉사활동 외의 다양한 단체, 기관들이 해외 봉사를 상품화하는 모습을 보이게 되는데 특히 개발협력 분야에서의 자성과 유사하게 봉사여행은 새로운 형태로 식민주의의 연장 성격을 보인다는 비판을 받기도 한다. 현재는 해외봉사활동이 단기로 청년층을 중심으로 진행되는 것이 대부분으로 전문성 부족, 참가자만을 위한 활동, 장기적인 계획 부재 등의 한계를 드러내지만, 상호문화 이해나 호혜적 관계 조성에는 긍정적 측면도 있어 기본적으로 참가자와 대상 지역 사회 모두에게 혜택이 되는 방향을 찾는 노력이 필요하다.

해외봉사활동은 해외원조 또는 개발협력과 더불어 활성화되는데 해외봉사단의 목적에서 그 배경을 찾을 수 있다. 대표적인 국가를 보면, 제2차 세계대전 이후 개발도상국에 봉사단을 처음으로 파견한 호주는 해외봉사단의 목적을 개발도상국 지원을 우선적으로 제시하여 해외봉사활동을 국제개발협력의 일부로 여기고 있으며, 참가자의 글로벌 시민정신 증진 또한 목적으로 하고 있다, 영국, 미국, 일본 그리고 한국도 유사하게 활동 목적의 우선순위를 대상 국가의 개발, 국가 간 협력, 그리고 국민의 글로벌 이해 증진 순으로 제시하는 공통점을 보인다. 이러한 목적은 해외봉사활동의 국제 규범으로 자리 잡고 있다.

표 2. 주요국과 한국의 해외봉사단 목적

주요 국가의 봉사단	해외봉사단 목적
호주 AVID (Australian Volunteers for International Development)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원국 지역의 개발 노력의 지속가능성 강화 지원 • 교환과 상호 교류를 통한 국제 협력의 정책과 실행 개선에 기여 • 장기적 관계 구축과 호주의 개발 노력에 기여하는 사람과 조직을 연계 • 해외봉사를 통한 참가자의 글로벌 시민정신 증진
영국 VSO(Voluntary Service Overseas)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빈곤퇴치를 위해 사람들과 함께 행동
미국 Peace Corps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상 국가 국민들이 훈련된 인력 수요를 충족할 수 있도록 지원 • 대상국 국민들의 미국인에 대한 이해증진 • 미국인들의 타 국민들에 대한 이해 증진
일본 JOCV (Japan Overseas Cooperation Volunteers)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발도상국의 경제와 사회의 개발/복원에 기여 • 개발도상국과 일본의 상호 우호와 이해 증진 • 일본 사회에 봉사활동 경험의 활용
한국 WFK(World Friends Korea)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발도상국 현지 주민의 삶의 질 개선 • 대 개발도상국 우호 협력관계 및 양국 국민의 상호 이해 증진 • 해외봉사활동 경험의 사회 환원

* 주성수 등(2016:37)을 재구성.

한국의 해외봉사단은 1990년 발족되어 35세 이하 청년을 모집하고 최초로 인도네시아 스리랑카, 네팔, 필리핀 4개국에 44명을 파견하였다. 점차 해외봉사단 파견기관이 다양해지고 규모가 커지며, 정부는 2009년 모든 정부 파견 봉사단을 월드프렌즈코리아(World Friends Korea)라는 통합 봉사단으로 묶어 한국국제협력단(KOICA)에서 운영하고 다른 기관의 봉사활동 지원도 하고 있다(주성수 등, 2016). 2006년을 기준으로 한국의 공적개발원조에서 봉사단 사업이 차지하는 비율은 21%를 넘어서 상당히 높다.²⁾ 한국은 2007년 한 해에만 선교 목적의 파견을 제외하고도 1만 명 이상의 청년을 다양한 단기 해외봉사단으로 파견하였다. 이는 해외여행에 대한 사회적 수요에 맞춘 다양한 봉사여행 형태의 사업이 급격히 늘어난 것으로 소위 ‘밀어내기식 해외봉사활동’으로 불리기도 한다(한재광, 2009).

한국은 해외봉사단을 국제개발협력의 중요한 수단으로 고려하고 인적 자원의 비교우위를 활용한 국민과 함께하는 원조 사업의 측면으로 보고 있다. 세계의 불평등에 구조적, 정치적 수준에서의 변화에 공헌할 수는 없지만 관심이 있는 봉사자들은 ‘해외봉사활동, 세상을 바꾸고, 자신을 바꾼다. 이는 모든 것을 바꾼다’는 이타적인 목적으로 대학생 나이의 학생들이 참여한다고 긍정적으로 평가한다(하재용, 2009; 최명근·구영은, 2016). 그러

나 최근 세계에서 가장 많은 수를 파견하는 한국의 해외봉사단 규모는 OECD 공적개발원조위원회의 2018년 동료 평가(Peer Review)에서 봉사단 규모가 과도하다는 지적을 받았다(OECD, 2018). 이는 공여국의 개발원조 재원이 자국의 해외봉사단에 많이 지출되지만 그 혜택이 참가자들에게 돌아간다는 측면을 지적한 것이다.

해외봉사단의 목적은 국가별로 다르지만 보편적으로 개발도상국 지원과 더불어 내부적으로는 경험을 통한 성숙의 양자를 모두 포함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까지 한국에서의 해외봉사활동에 대한 관심은 참가자의 인식 개선 등에 치중하고 대다수 성공적이라는 평가를 내린다(김지만·김예란, 2013; 유인선, 2014; 조혜영, 2015). 또한 대학생이 주를 이루고 있어 교육봉사라는 이름으로 활동을 하는 경우가 대다수인데 한국대학사회봉사협의회의 모집 분야는 ‘태권도 교육’, ‘한국어 교육’, ‘IT 교육’ 등으로 한국의 교육을 강점으로 부각시키고 경제 발전 또한 교육을 토대로 이루어졌다고 가정하는데, 오히려 한국 교육을 ‘놀이 교육’으로 오해할 개연성도 포함한다(박공식·전현욱, 2018). 특히 대다수의 국가에서 청년 해외봉사활동은 교육과 보건 분야에 치중하고 있고, 한국의 단기 해외봉사단 사업은 장기 사업에 비해 시행주체, 참가자 규모, 내용의 다양성, 전문성의 차이도 상당해 사회적 파급효과가 클 수 있음에 주목할 필요가 있

다(주성수 등, 2016). 비판적 안목의 논의는 글로벌 정의에 대한 사전 교육의 부족, 봉사 철학의 부재 등을 제기하고 있지만 아직 성공적 해외봉사활동이라는 평가가 주를 이루고 있다(강종안 등, 2009; 조문영, 2013).

단기 해외봉사의 증가는 청년들이 넓은 세계를 경험할 수 있다는 장점과 더불어 문제점도 내포하고 있는데 우선, 참가 목적이 '봉사도 하고 새로운 문화도 경험한다', '가난한 개발도상국의 주민들을 위해 도우러 간다' 등이 주류적인 참가자들의 생각이다. 여기에 현지 주민들은 단순히 봉사과 수혜의 대상으로만 설정되어 참가자의 감동, 경력 만들기를 위한 대상으로만 간주된다. 개발도상국 주민들은 단기 해외봉사단을 위한 객체이자 감동과 만족을 주는 대상인 것이다. 활동의 기획과 실행 단계에서 개발도상국 주민들의 참여를 배제하는 참가자 중심의 일방적인 단기 해외봉사단 활동은 개발도상국 주민들의 삶의 현장을 훼손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 단기 해외봉사단은 보편적으로 시행 주체들이 좋은 사례만을 홍보하고 참가자들을 늘리기 위해 활동 사례를 성공적이라고 포장해 비판적 관심은 부족한 편이다. 질적 측면의 검토가 필요한 이유는 여기에 있다(한재광, 2009; 김동훈, 2012).

개발도상국 지역 사회에의 개입은 선의에서 비롯되었다 하더라도 강자와 약자 사이의 권력 관계를 내포하고 있다. 현지인들이 외부의 도움을 원하기 때문에 참가자가 지원할 것이라 할지라도 참가자의 개인적 변화가 지역 공동체의 희생이 따른다면 문제가 될 것으로 참가자가 스스로 성찰하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대부분의 해외봉사활동은 참가자들에게 경험 학습 또는 교육의 기회이며, 친빈근적이고 참가자와 지역공동체가 모두 상호 혜택을 받는 상황으로 전개될 때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 해외봉사활동을 통한 개인적 성숙과 더불어 글로벌 정의의 인지, 즉 글로벌 부정의와 불평등은 개인과 조직에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참가자와 대상 지역 공동체 모두에게 혜택을 주는 활동으로의 본질적인 가능성을 높이는 방향이 될 것이다. 그러나 20세기 후반 개발의 목적에서 시작한 해외봉사활동은 역사적인 개발봉사(volunteering for development)로부터 멀어지며 점차 관광과 결합한 봉사여행(voluntourism)의 형태로 변모하고 있다. 다음에서는 단기 해외봉사활동에 대한 신자유주의화와 신식민주의 비판을 논의해 보고자 한다.

2. 해외봉사활동 비판: 개발봉사인가? 봉사여행인가?

해외봉사활동 참가자는 대다수 경제적으로 발전한 국가에서 소득이 있는 선별적 계층이라는 지라사회적 특성을 가진다. 이러한 특성은 개발도상국에 대한 부정적 정형을 강화할 가능성이 크며, 세계 불평등 문제에 대한 관심보다 개인의 경험과 자격을 획득하는 기회로 고려하는 성향을 보인다. 이러한 배경으로 해외봉사활동은 여러 비판을 받는데 이는 활동 자체의 가치를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개선점 모색을 위한 제언으로 받아들일 필요가 있다. 해외봉사활동에 대한 비판은 해외봉사의 신자유주의화 경향 그리고 보다 근본적으로는 신식민주의적 입장에서 제기되는데, 이는 이타적·이기적, 개발·개인, 구조·행위 등의 동정과 정의 스펙트럼으로 정리할 수 있다.

1) 봉사활동의 신자유주의화, 봉사여행

세계적으로 1980년대 말부터 나타난 경제 위축과 개발도상국의 부채 위기는 정부 간섭의 최소화화 and 공공 서비스 축소로 대표되는 신자유주의의 확대에 이어진다. 해외봉사활동은 국제개발협력이 활성화되던 시기 해외 원조의 일부로 간주되어 정부 지원으로 활성화되었으나, 개발 방식이 하향식의 근대화 전략에서 점차 기초 수요와 참여에 기반한 동반 관계(partnership)를 강조하고, 봉사활동은 정부 지원의 축소로 민간단체가 새로이 등장하며 기술 전수와 경제 발전에서 사람에게 초점을 맞춘 활동으로 변화한 모습이 특징으로 나타난다(Lough, 2015; Laurie and Smith, 2018; Schech *et al.*, 2018). 해외 봉사활동을 형태 짓는 신자유주의의 영향은 시장과 선택에 우선순위를 두고 개인의 자율성과 책임에 특권을 주며 정부, 기업 그리고 시민단체간의 협력 강조로 나타난다(이용균, 2015). 또한 봉사활동의 신자유주의적 접근은 재정을 지원한 기관이 봉사단체에 참가자의 기술 개발 등을 강조하면서 효과성과 결과 중심의 관리에 초점을 맞춘다(Smith and Laurie, 2011).

정부, 기업 그리고 시민단체간의 협력에 대한 신자유주의적 강조는 정부와 사회관계의 시장화로 공공서비스가 비정부기구에 의해 제공되는 결과로 나타난다. 경제적 효율성과 측정 가능한 결과 도출의 목표들은 해외봉사를 가시적 결과를 만들어 내는 활동으로 유도하고 단

기 파견을 늘리는 상황으로 이어진다. 봉사활동은 점차 지역과의 평등한 협력과 지역 주인의식 고취 그리고 봉사단이 지역의 개발 목표에 부합하는 유연한 활동을 전개하는데 장애를 경험하게 된다(Schech, 2017). 세계화의 진전, 교육과 레저, 개인주의, 청년층의 취업 관련 기술 수요 등의 전반적 사회경제의 변화 상황은 해외봉사활동에도 참여 동기를 새로이 부여해 청년층 위주의 단기 활동이 늘어나게 하며 봉사여행 형태로 변모하는 양상이 두드러지는 결과로 나타난다(Franco and Shahrokh, 2015).

신자유주의의 확대는 해외봉사활동을 기존의 개발과 글로벌 정의를 표방하며 상품화 형태의 봉사여행으로 변모시킨다. 참가자들은 세계에 대한 책임을 행동으로 옮기고, 즐겁게 세상을 관광하며 개발도상국의 불행한 상황에서 '차이 만들기'를 동시에 행한다. 해외봉사활동은 대다수 개인의 자율과 책임을 강조하는 신자유주의 실천과 연계되어 구조적 불평등에 대한 비판적 측면보다 개인 봉사 참가자에 초점을 맞춘다(Mostafanezhad, 2013). 참가자들의 개인적 윤리성은 지역 사회를 빈곤하게 만든 체계에 대한 도전을 제기하기보다 '가난하지만 행복한' 공동체로 보는 입장을 취한다. 이는 신자유주의가 세계의 빈곤문제로부터 참가자들을 탈정치화시키며 상업화된 해외봉사로 영입하는 모습이다. 봉사여행은 기존 대량관광의 대안으로 청년층들에게 다른 나라의 문화를 배우며 도와주는 형태로 등장해 대학에서는 봉사학습과 연계되어 활성화된다.

해외봉사활동은 봉사여행으로 상품화되며 문화 기술이나 자본을 습득해 이력서에 기재하는 항목이 되었다(McGloin and Georgeou, 2016; Schech, 2017). 봉사여행은 기업, 종교단체, NGO들에 의해 참가자를 고무시켜 학교 짓기와 같은 개발 프로젝트와 유사한 소규모 프로젝트를 수행하며 '차이 만들기'의 활동으로 기획된다. 이는 봉사여행 기업들이 참가자들에게 '차이 만들기'의 욕구에 호소하면서 '개발 경험'을 판매한다(Smith and Laurie, 2011). 해외봉사활동의 상품화는 개발도상국 지역을 이타적 행동을 합법화하는 형태로 해외봉사활동을 구미에 맞게 만들어진 소비재로 전락시키는데, 참가자 모집 홍보는 현실을 극악한 가난이나 '가난하지만 행복한' 표어나 이미지로 포장하고 현실을 왜곡하여 전달하는 경우가 많고 참가자는 자신들의 특권과 책무를 봉사여행으로 떨쳐 버리게 하는 역할을 하면서, 상업적으로 등장한

해외봉사 프로그램은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다(Dogra, 2014; Long, 2017).

대중을 겨냥한 해외여행이 본격적으로 성장하며 여행사들은 관광객을 늘리기 위해 제3세계의 빈곤을 관광 상품으로 변화시켰다. 관광객들은 독특한 차이를 드러내는 '타자'를 여행지에서 원하는 것이고, 제3세계의 빈곤 상황은 때 묻지 않은 상황으로 표현된다(손혁상 등 역, 2016). 제3세계 역시 독립 후 1차 산물의 수출에 의존하던 경제 구조에서 관광은 외화 벌이의 가능성을 보여 활성화된다. 관광객들은 차이를 원하는 하지만, 그들이 추구하는 것은 단지 시각적 차이일 뿐이지 실제의 차이가 아니다(이영민 · 박경환 역, 2011). 제3세계 지역 문화는 차이를 지향하는 관광의 이미지와 더불어 어느 정도 서구의 기준에 적응해야만 한다. 이는 타자의 문화가 서구의 기대에 부합하도록 서구 친화적인 형태로 간주되는 것으로 '타자의 문화가 마치 테마파크처럼 여겨지고 있다'(이영민 · 박경환 역, 2011:108). 관광은 다른 장소를 직접적, 간접적으로 보여주는 인식의 측면에서 중요한 매개 역할을 한다. 다른 문화를 서구적 상상력으로 여행하는 것은 수많은 내러티브와 담론을 동원하는 광고를 통해 대중화되고, 많은 사람들이 여행 경험을 통해 차이를 확인하며 자기 자신을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한다. 대부분의 관광객들은 현지 언어를 습득하거나, 지역의 풍습에 익숙해지려는 시도는 거의 하지 않는다(이영민 · 박경환 역, 2011).

해외봉사활동의 상품화 또는 상업화는 활동 조직 기관이 봉사 참가자를 유입하기 위해 개발도상국 지역 사회의 가난을 과장하며 이윤을 쟁기는 형태가 점차 늘고 있다. 주관 기관들은 독특한 담론을 동원하는데 봉사 참가자들은 기술은 없지만 열정적이어서 개발봉사가 가능하다고 인식할 것을 권장하며 준비할 필요 없이 참가만 하면 되는 무언가를 하는 게 안하는 것보다는 낫다는 정도의 자세로 접근한다. 이러한 변화는 다양한 이해를 가진 참가자를 수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근본적인 빈곤과 불평등 등의 구조적 문제에는 상징적으로만 대응하는 한계를 보인다.³⁾ 이러한 사고는 1960년대 근대화 개발 모델과 유사한 관점으로, 개발도상국의 다양한 지리를 고려하는 1990년대부터 강조되는 후기발전주의 접근과는 거리가 멀다(Simpson, 2004; Willis, 2014).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기 해외봉사활동은 활성화되는데 정부의 입장에서는 취업 자질을 갖춘 책임감 있고 경

쟁력이 있는 신자유주의 시민을 양성하며 동시에 저렴하게 자신들이 책임져야 하는 지역을 지원해주어야 하는 상황과 NGO들은 다른 소득 유입을 찾아야 하는 점, 관광 산업은 경제적 이윤과 효율을 추구하며 해외봉사 활동에 참여하는 요인들에서 그 배경을 찾을 수 있다(Schech, 2017; Yea *et al.*, 2018). 해외봉사 참가자들은 자신의 경험, 경력 만들기를 목표로 대상 지역에 대한 이해나 준비 없이 현지 활동에 참여하게 되며, 양적 결과에 치중한 평가는 단기의 경우 성과를 내기 어려워 교류와 관계 형성과 같은 질적 접근의 기회마저도 가지기 어렵게 한다. 이는 다른 지역에 대한 기존의 이미지나 문화적 정형을 따르며 오해가 반복되며 고착화되는 문제를 만들고, 참가자들은 현장에서 접하는 현실과 달라 실망감을 느끼게 되거나 자신이 큰 차이를 만들고 있다는 착각을 하는 신식민적 사고를 배태시키는 계기를 마련하게 될 수도 있다.

2) 봉사활동의 오리엔탈리즘, 동정적 신식민주의

해외봉사활동은 선진국에서 능력이 있는 계층을 중심으로 개발도상국을 대상으로 이루어져 환경에 미치는 영향, 특히 서구의 소비자들이 침구와 냉방이 구비된 숙박과 음식을 구매하며 문제를 일으키곤 한다. 또한 관광객들이 쓰는 돈은 외지 소유의 호텔을 통해 다시 서구로 들어가기 때문에 지역 경제에는 그다지 도움이 되지 않는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해외봉사는 부와 여유 등을 가진 참가자가 주를 이루어 불평등 문화를 지속시키는 역할을 하고, 개발도상국 사람들은 이들과 접촉하며 자신들의 가치 체계와 기대 수준을 바꾸게 되는 문화 제국주의를 재촉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이영민·박경환 역, 2011; Atkinson, 2017). 해외봉사활동은 권력, 특권 등의 식민주의적 성격을 본질적으로 내포하고 있어 특히 봉사여행 형태의 경우 신식민적 실천으로 비판을 받는다(Devereux, 2008; Perold *et al.*, 2013).

해외 봉사여행이 가지는 신식민적 성격에는 오리엔탈리즘이 자리 잡고 있는데, 이는 서구가 비서구, 즉 현재의 대다수 개발도상국에 대해 가졌던 우위와 열위의 이분법적 세계관으로 서구가 정체성을 찾기 위해 타자에 부정적인 특성을 투사한 것을 말한다(이영민·박경환 역, 2011). 여기에 정보나 지식이 많지 않은 개발도상국에 대해서는 가난과 빈곤의 문제를 안고 있고 기술 수준도 낮아 다른 나라의 도움을 필요로 한다는 서구에서 만

들어 낸 단순화와 과도한 일반화의 부정적인 이미지를 부여하고, 이러한 이미지는 봉사 파견 기관이나 단체에서 참가자 모집을 위한 홍보로 강조되면서 부정적 이미지는 더욱 고착화된다(Dogra, 2014; 김권호·권상철, 2018). 개발도상국 여행기는 대중적 영향력을 가지는데(김옥선, 2015; 박주현, 2008), 해외봉사활동이 개발도상국에서 전개되며 봉사 참가자들의 단기간의 관찰은 기존 정형화된 이미지를 확인하는 수준에 머무르고, 이들의 활동보고서는 새로운 참가자들에게 참고자료가 되며 기존 이미지를 더욱 고착시키는 역할을 한다. 참가자는 해외봉사의 목적으로 표방된 개발도상국에서 '차이 만들기'를 위한 활동으로 교육 받고 그렇게 인식하며 봉사와 희생의 시혜적인 태도를 가지게 되는 경우도 많아 직설적 또는 암묵적으로 우월감을 드러내는 경우가 많다(조문영, 2013).

개발도상국은 식민시기에 만들어진 이미지가 오리엔탈리즘으로 고착되고, 최근까지도 지역 이해의 수준이 이국적인 것에 대한 단순한 흥미 위주의 관심에 머무르며 발전을 필요로 하는 대상으로 정형화되어 나타난다. 특히 한국은 2010년부터 국제개발 분야의 새로운 공여국으로 등장하며 식민 제국이 아니었기에 죄책감이나 서구식 우월의식이 없다고 생각할 수 있으나 서구인의 위치를 점하며 서구인의 시각으로 개발도상국을 바라보는 우월감을 드러내는 오리엔탈리즘을 복제하고 있는 모습을 보인다(이옥순, 2003). 한국은 선진국이 만들어 낸 개발도상국 이미지를 그대로 받아들여 개발도상국에 대한 서구의 안목을 답습하는 모습을 교과서에서도 드러내고 있다(주재홍·김영천, 2010; 김다원·한진수, 2012). 우리보다 후진적으로 비치는 개발도상국은 빈곤이 환경적, 사회적 특성에서 기인하고, 경제 성장을 통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단순하게 이해하며 가난한 도움을 필요로 하는 지역으로 재현한다(김권호·권상철, 2018). 개발도상국에 대한 편견은 정보 부족이 아닌 관점의 결핍이 보다 중요한 문제이다.

신식민주의는 1980년대 새로이 독립한 국가들이 수십 년 간의 개발에도 빈곤과 불평등이 줄지 않고 보진, 문맹률 개선, 경제 성장 등이 실패하며, 발전 지향의 서구식 접근을 독립된 국가를 다시 통제하기 위한 전략이라고 보는 입장이다. 대표적으로 관광 산업은 개발 지향의 개발도상국 상황과 맞물려 이들을 관광지로 개발하고, 개발도상국은 1차 산업위주에서 관광을 통한 외화 수입의

다변화를 꾀하며 새로운 관계를 만들게 된다. 양분된 선진국의 관광객과 개발도상국 주민 간의 만남은 동반 관계가 아닌 신식민적 관계로 나타나게 된다. 특히 관광 홍보를 통한 개발도상국의 이미지는 문명화되지 않은 식민적 신화(손희상 등 역, 2016)로 지속적으로 반영되고 강화된다. 봉사여행은 신식민적 경제 관계를 재생산하게 된다. 탈식민적 접근은 봉사여행의 실행이 권력, 특권, 그리고 압제의 신식민주의적 구조를 강화하며, 봉사여행의 좋은 의도 뒤에 내재된 모순의 문제를 제기한다(Blum and Schafer, 2018). 봉사여행에서 강조하는 '차이 만들기' 또는 '다른 사람의 미래에 공헌하기'와 같은 언어는 식민적 개발 목표를 위장하는 것일 수 있고, 성찰적이지 않은 봉사활동을 강화한다고 주장한다(Simpson, 2004; Devereux, 2008). 봉사활동의 중요 동기는 단순히 '이국적인 곳'에 가는 것이라는 오리엔탈리즘적 언급이 빈번하고, 봉사활동 이후 사회적 의식이나 가치, 대상 지역 사회의 변화의 증거는 미약하다(Sin, 2010).

봉사여행은 1980년대 대량 관광에 대한 대안 관광의 하나로 관광객뿐 아니라 대상 지역 사회에도 혜택이 가도록 한다는 호혜적인 관광의 잠재적 가능성으로 시작되어, 개발도상국이 목적지이고 대다수 청년층으로 2주 전후의 짧은 기간 동안 새로운 경험, 다른 문화 체험, 지역 주민과의 상호 교류, 공동체 교육, 복지 사업, 환경 복원 시도 등의 필요한 도움 활동을 전개한다. 그러나 대상 지역 사회에 미치는 영향 등을 주민들의 관점을 반영한 평가인가에 대해서는 회의적이다. 본질적으로 봉사활동은 경제적 능력이 있는 참가자가 가난한 대상 지역 사회를 서로 연계시키는 불평등한 관계에서 시작한다. 봉사활동의 혜택은 지역 사회보다 참가자에게 기울어져 있고, 지역 사회에 미치는 영향은 지역 주민의 요구 무시, 만족스럽지 않은 완성되지 않은 작업, 지역 주민의 의존 증대, 그리고 지역 주민의 타자화 등이 또한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봉사활동은 단순화된 담론으로 '발전'이 무언가 '할 수 있다'는 것으로 보며 기술이 없지만 열성적인 참가자들이 개발도상국을 서구의 사례를 따르게 권고하고, 문제를 해결하는 역할을 담당한다면 신식민주의적 안목을 키우는 결과로 이어진다(Simpson, 2004).

해외 봉사여행은 빈곤에 대한 비판적 성찰을 조장하기보다, 참가자 스스로 우위에 대한 인식을 더 강화하는 모습이며, 도움을 준다는 가정은 청년 참가자들에게 구조적 불평등을 간과하게 한다. 결국 봉사활동 경험은 우

위의 참가자와 열위의 수혜자 간의 이분법의 신식민적 관계를 강화시키게 된다. 참가자들은 충분한 지식과 자질, 지역 주민과 통합하고 신뢰를 쌓을 시간이나 이타적인 의도를 충분히 가지지 못해 지역 사회에 혜택보다 폐해를 주는 경우가 빈번하다. 봉사활동의 장점으로 언급되는 상호문화 이해에 대한 강조 또한 단기 도움을 초점을 둔 자신들에만 관심이 있는 태도를 보이고 대상 지역 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지 않는 활동은 정의의 이름아래 행해지는 부정의한 실천이 된다.

해외봉사활동은 개발협력의 일부로 발전을 지향하는 활동으로 시작되었으나, 점차 개인의 경험과 성장에 초점을 맞춘 상업적 목적의 봉사여행으로 변해가고 여기에 신식민적 양상이 드러나는 경우도 빈번하다. 봉사활동이 호혜적이고 발전 잠재력이 있기 위해서는 세계 불평등, 부정의 등에 대한 의식 고취가 중요하며, 특히 단기 청년 해외봉사활동은 대다수 봉사여행의 성격을 보임에도 개발도상국을 지원하는 개발봉사로 인식하는 모순된 입장을 보이고 있어 비판적 안목과 노력이 요구되는 상황이자 시점이라 하겠다.

III. 봉사여행에서 개발봉사로: 동정과 정의, 호혜 관계와 지역 지식

해외봉사는 발전 국가에서 개발도상국을 도와주는 이타적 원조 활동의 일부로 시작하였으나, 신자유주의 상황에서 개인의 경쟁력 강화 등에 초점을 맞춘 봉사여행 형태가 주류가 되며 개발도상국은 단순한 목적지뿐만 아니라 간주되는 문제를 드러낸다. 해외봉사활동의 질적 개선을 위해서는 동정에서 정의로의 안목 변화와 더불어 교류를 통한 관계 형성 그리고 개발도상국 지역 이해의 노력이 필요하다.

1. 동정과 정의 사이

최근 해외봉사활동은 단기의 경우 여러 단체, 기관에서 다양한 목적으로 진행하는데, 참가자는 대다수 청년층으로 이들은 빈곤 지역에서 지역 주민과 직접 접촉하며 문화 차이를 경험하고, 자신의 성장과 지역 사회의 발전에 도움을 주는 것으로 평가한다(Sin, 2010; 최명근·구영은, 2016). 그러나 이러한 참가자 중심의 평가

는 일반적으로 대상 개발도상국 지역으로부터의 의견이나 지역에 대한 관심은 무시하는 모습이다(조문영, 2013; 박공식·전현욱, 2018; Tiessen, 2018). 또한 개발도상국에 대한 이해가 없는 발전 국가의 참가자들은 현지에서 자신들의 생활, 가치관을 유지하며 활동해 직·간접적으로 지역 사회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대다수의 혜택은 참가자들만이 누리는 결과로 이어진다는 비판을 받는다(Palmer, 2002; Simpson, 2004; Perold *et al.*, 2013).

해외봉사활동이 여행이 되기도 하고 여행이 봉사활동이 되기도 하는 복잡한 상황은 기본적 분류를 통해 자신의 위치를 파악할 수 있게 해주는 것이 참가 동기나 경험의 혼란을 줄이고, 바람직한 활동 방안을 모색하는 방법의 시작이 될 것이다. 해외봉사활동은 기본적으로 개발원조와 연관된 지역 발전에 도움을 주는 개발봉사와 개인의 성장에 초점을 맞춘 민간 부문의 상업적 봉사여행으로 구분할 수 있고, 이들은 대략적으로 장기와 단기 봉사활동의 목적에 가까운 모습이다. 해외봉사활동의 상업화와 신식민적 성향은 양자 모두에서 나타나지만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프로그램이 많고 단기가 수적으로 우세해 혜택보다는 피해를 줄 가능성이 높은 한계를 가지고 있어 이를 인지하고 활동을 전개할 필요가 있다.

다양한 해외봉사활동은 피해와 혜택이라는 측면에서, 불평등의 지속(피해), 경험과 경력(자기중심), 피해나 도움 없음(중립), 자원 또는 기술 지원(도움), 상호문화 이해(교육효과), 지속가능한 사회운동(사회 행동)의 6가지 분류가 제시된다(Atkinson, 2017). 이 분류는 피해나 도움이 없는 중립 상황에서 불평등을 지속시키는 피해에서 경험과 경력 쌓기의 자기중심적 활동의 부정적 측면, 반대로 상호문화 이해의 교육효과와 불평등에 대한 사회 행동의 긍정적 측면을 구분하는데, 봉사 참가자와 대상 지역 사회를 구분하지 않고 제시되어 있다. 해외봉사활동은 현실적으로 참가자와 대상자로 구분되고 참가자

의 봉사활동에 대한 인식이 기본적 입장이고 실천으로도 이어지기에 중요한 출발로 의미가 있고 교육적 측면에서도 중요하다.

최근 해외봉사활동과 관련한 국제 개발과 세계시민교육 분야는 변혁을 꾀하고 있는데, 개발도상국의 발전을 지원하는 해외원조는 자선, 선행에서 기회, 호혜를 강조하는 개발협력으로 변화하고, 세계시민교육은 세계의 동등한 연계에서 불균형적 세계를 강조하며 자선에서 정의로의 비판적 접근을 강조하고 있다(Andreotti, 2007; Mawdsley, 2012; 권상철, 2016). 이러한 변화에 비추어 다양한 해외봉사활동의 목적은 동정과 정의의 스펙트럼에 비추어 구분하여 봄으로써 인식의 다양성을 포착하고 변화의 지향점으로 참고할 수 있다. 개발도상국 현장에서 지역 주민과 교류하며 이루어지는 봉사활동은 상대방을 대하는 참가자의 안목과 태도를 정립하는 사전 교육을 진행할 필요가 있다. 개발도상국 빈곤에 대해 도덕적 의무감으로 시작하는 활동은 자칫 교육과 기술 전수가 자선적, 동정적 입장에서 이루어지며 기부자로서의 태도로 표출될 수 있다. 그러나 개발도상국과의 관계 형성의 입장에서는 직접적 경험에 기초한 공감, 대상 지역 주민과 교류를 통해 상대방과 더불어 배우기로 이어지며 동반자적 그리고 상호 혜택의 관계로 나아갈 수 있을 것이다.

해외봉사활동은 청년층이 대다수를 이루고 소요되는 상당한 비용을 정부나 사회단체로부터 충당하기에, 동정과 정의의 스펙트럼에 비추어 봉사여행에서 개발봉사로의 이동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Schech *et al.*, 2018).⁴⁾ 해외봉사활동에 대한 인식의 변화는 참가자의 현지 지역 사회에서의 행동 그리고 세계관 변화로도 발전할 수 있다. 이러한 변화가 실제 효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실천적 측면에서 지역 이해를 위한 노력을 또한 필요로 한다.

표 3. 해외봉사활동의 동정과 정의의 관점

	동정(Compassion)	정의(Justice)
입장	빈곤에 대한 도덕적 의무	개발도상국 지역과의 결속
문제 인식	다르고 떨어진 타자에 대한 동정 (sympathy)	공유된 정체성과 경험에 기초한 공감 (empathy)
문제 해결	앞선 지식, 제도, 과학과 기술에 기초한 전문 기술	빈곤 상황에서 개발을 추구한 직접적 경험에 기초한 전문 기술
봉사 자세	자선, 공유의 배려, 타자를 위한 교육	정의, 피해에 동조, 타자와 더불어 배우기
상호 관계	교호의 부족, 도움의 선행, 기부자	교호의 전면, 상호 혜택, 동반자

* Andreotti(2007); Mawdsley(2012)의 내용을 선별하고 합병하여 구성.

2. 대학생 해외봉사활동보고서 사례

해외 지역에 대한 이미지는 여행기나 방송을 통해 만들어지는데 개발도상국은 재해, 기아 등의 어려움을 겪는 지역으로 소개되고 발전과 지원이 필요한 대상으로 정형화되는 경우가 보편적이다. 이는 해외봉사 참가자에게 공헌과 희생의 자선적인 태도를 가지게 하는 배경이 되기도 한다. 해외봉사활동 경험에 대한 참가자의 인식과 태도 그리고 성과는 설문이나 면담을 통해 직접적으로 파악하는데, 대다수 참가자들만의 이야기가 주를 이루고 현지 사람들의 이야기는 찾아보기 어렵다. 한국의 경우 해외봉사활동에 대한 성과는 참가자의 인식 변화, 특히 성과에 관심을 기울여, 대다수 관심 증대, 이해 증가, 인식 강화 등의 결과를 보이며 만족스런 성과를 나타낸 것으로 결론을 내린다(김지만·김예란, 2013; 유인선, 2014; 조혜영, 2015). 다른 국가의 봉사 참가 동기 설문 조사 결과를 보면, 캐나다의 경우 상호 문화 이해, 전공과 취업 적응, 취업/경력 개시, 개인적 성장, 기술 개발이 상위 5순위로 60% 이상을 차지하고, 모험과 다른 사람을 도와주기, 언어 습득 등이 나머지로 나타나고(Tiessen, 2018), 호주의 경우 귀중한 생애 경험, 개발도상국 지역에 도움, 참여기관에 도움, 의미 있는 직업 경험, 새로운 세계관 형성이 상위 5순위로 65% 이상을 차지한다(Schech *et al.*, 2018). 이들 결과는 해외봉사 참가자들 대다수가 자신의 성장과 관련된 목적을 우선시하고 있어 유사한 모습을 보여준다.⁵⁾

대다수 해외봉사활동은 참가자 중심으로 논의되며 대상 개발도상국 활동 지역에 대한 이해, 이들에 미친 영향 등에 대해서는 관심이 부족해 해외봉사활동의 질적 개선을 위해 비판적 안목의 검토가 요구되는 시점이다. 최근 여행기 분석을 통해 여행 주체의 권력, 욕망, 편견 등을 드러내는 비판적 접근(김옥선, 2015; 박경환, 2018)과 유사하게 해외봉사활동결과보고서를 검토하며 참가자들이 어떤 생각과 경험을 했는지, 어떤 안목을 가지고 참가 했는지 등을 포착할 수 있을 것이다. 다음에서는 대학생 해외활동보고서 사례로 여러 대학에서 참가자를 선발한 한국국제협력단과 대학사회봉사협의회의 자료 그리고 두 대학교의 결과보고서 내용을 선택하여 차례로 검토해 보았다. 한국국제협력단(2013)과 대학사회봉사협의회(www.kucss.or.kr)의 해외봉사활동 수기를 일부 인용해 보면 다음과 같다.

“세상에는 매우 열악한 환경에서도 자신의 삶에 만족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다. 아플 때 수술을 받을 수 없어도, 구정물을 마시며 별래와 생활해도, 명품 기방과 빛나는 귀금속이 없어도 항상 웃는 사람들이 있다. 반면 나는 사소한 실패에도 세상이 무너지는 것처럼 전진공공하고, 열등감을 느끼고, 실패하면 영원히 패배자가 된 양 우울해 했다.”

“아이들은 변화하고 있고, 그 변화는 내가 본 절망스런 인도의 변화이기도하다. 온갖 상처로 아파했던 20명의 R. P. C. 아이들의 변화는 보호받지 못하고 교육받지 못하고 사랑받지 못하던 그들이 보호받고 교육받고 사랑받을 때, 이미 일어나기 시작했다.”

“아이들의 마음을 많이 두드리는 노력을 했다고 생각한다. 영어를 잘 하지 못하는 아이들은 ‘Teacher! I'm happy.’ 라고 말하며 미소를 짓는 모습이 너무 사랑스러웠다. 행복한 바이러스가 나에게도 전해지며, 내가 오히려 사랑받고 있음을 알게 해주는 시간이었다.”

“케냐의 아이들을 옴아매고 있는 빈곤이란 근본적 문제의 시슬을 끊기엔 우리의 힘은 너무도 미약하다.”

위의 인용은 동정·정의의 스펙트럼에 비추어 선별한 내용을 배열해 본 것으로, 처음의 인용은 동정과 감성의 성향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두 번째와 세 번째 인용은 참가자 스스로 자신에게 유리한 해석, 즉 봉사 대상자의 입장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이타적 이기심을 드러내고 있다. 그러나 네 번째 인용은 개발도상국의 빈곤 문제를 보다 근본적으로 고민해 보며 비교적 정의 측면에 가까운 안목을 가진 입장으로 빈곤이란 문제는 보다 구조적인 역학이 작동하고 있음을 인식하며 봉사활동의 의미, 목적을 숙고하는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

두 국립대학교⁶⁾의 해외봉사활동보고서 내용을 일부 인용해 본다.

“라오스에서..... 어떻게 하면 아이들에게 더 좋은 것을 알려줄 수 있을까 이것도 좋까, 저것도 좋까 고민하고, 한 번이라도 아이들에게 더 웃어주려 하고 재밌게 해주려 하지 않았는가. 나는 바로 거기서 행복이 있던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다.”

“가장 기억에 남는 봉사는 부채 만들기, 예코백 만들기, 가면 만들기였다. 아이들뿐만 아니라 현지 선생님들까지

많은 관심을 가졌고, 아이들에게 실용적인 선물을 줄 수 있어 주는 사람과 받는 사람 둘 다 행복한 시간이었다.”

“가장 효율적으로 돕는 방법에 대한 고민 때문이었다. 어떤 이들은 의료봉사를 한답시고 수십 명이 우르르 몰려가 학생제나 진통제 등을 처방하는 행위를 일회성이고 비효율적이라며 비판한다. 차라리 그 돈을 모아 지역에 필요한 의료 인력 한 명을 배치, 지원해주는 것이 그들의 삶에 더 이롭다고 덧붙인다. 맞는 소리다. 삶과 문화를 몸소 체득했다. 내 자신의 한계를 알고 나아감을 배웠다.”

“한국에서처럼 언제나 부산히 정신 없게 무언가를 하고 무엇인가를 만들어 내야지만 직성이 풀릴 것 같지만, 우리가 (해외) 지역에 들어가면서 버려야 할 기본적인 생각은 내려놓기, 욕심 버리기인 것 같다. 그래야만 우리가 투입된 지역의 생태계를 무너뜨리지 않고 지역에 녹아들 수 있기 때문이다.”

위의 인용도 선별적으로 추출한 내용을 동정-정의에 비추어 배열한 것으로, 앞에서 인용한 한국국제협력단과 대학사회봉사협의회의 활동보고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은 참가자들의 인식과 이해 수준을 보여준다. 첫 번째 인용은 자기만족 중심의 활동으로 평가하는 감상을 적고 있어 동정-정의의 스펙트럼에서 동정에 가까운 입장으로 볼 수 있다. 나름 현지 학생들에게 즐거움을 주려는 노력은 보이지만 그 노력마저도 자신의 행복을 지향하는 모습으로 현지 학생의 입장에 대한 배려나 국민의 노력은 기울여지지 않는 모습이다. 두 번째 인용은 아이들과 현지 선생님의 입장, 그리고 현지 수요를 참가자 스스로 과다하게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실용적인 선물로 평가하는 에코백은 한국에서만 통용되는 용어로 개발도상국 상황에는 적합하지 않으며, 실용적이라는 언급 또한 현지에서는 쓰지 않고 지역 상황에 부합하지도 않는 물건임에도 좋은 평가를 내리고 있다. 세 번째와 네 번째 인용은 비교적 정의적 안목을 가지고 있으며, 현지 상황에 대한 이해의 중요성을 보여주는 내용으로 평가할 수 있다. 보다 실제적인 현지의 필요를 고려하는 입장, 자신의 한계를 인식하고 더욱 세계적 차원의 노력을 경주하려는 의지를 세우는 입장은 동정을 넘어 정의적 측면으로 접근하는 모습으로 파악할 수 있다. 현지 활동을 봉사자, 한국식의 입장보다 우선시 하려는 그림으로써 현지의 사회경제를 헤치지

않으려는 방향, 보다 이론적으로는 탈식민적 접근 그리고 비판적 세계시민의식을 취하는 입장으로 자기 자신의 인식과 더불어 활동 지역의 영향과 혜택을 모두 고려하는 태도를 가지려는 노력은 변혁적 학습의 기회로 발전시킬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준다.

전국 단위 그리고 지방의 두 국립대학교 사례에서 나타난 대학생의 해외봉사활동에 대한 인식은 거의 유사한 모습을 보여준다. 이들을 동정-정의의 스펙트럼 틀에서 보면 대다수는 아직 동정적 측면에 가까운 모습이고, 일부 정의적 측면의 인식을 가지고 있어 해외봉사활동이 보다 참가자 개인의 감성, 동정보다는 개발도상국을 단순히 도움을 필요로 하는 대상으로만 볼 것이 아니라 세계의 불평등 문제 그리고 이에 대한 세계시민으로서의 인식과 가치를 높이는 세계 문제에 대한 자의식과 책임감을 고취하는 학습 기회로의 발전이 필요하며(Palacios, 2010; Travers, 2014), 그러한 방향으로의 활동 가능성도 찾을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우선 해외봉사활동이 단순한 봉사여행이 아니라 개발협력 분야의 일부로 인식하는 배경적 이해와 봉사활동의 상품화와 신식민적 참여에 대한 비판적 논의를 수용적으로 검토하는 성찰적 자세가 필요하다.

해외봉사활동은 동정에서 정의로 변화를 시도함으로써 봉사여행에서 개발봉사로 그리고 개인에서 글로벌 차원에서의 변화와 가능성을 높여 줄 것이다. 이러한 변화는 중요한 개념적 출발이자 실천적 활동 지침으로 교류를 기초로 한 상호 관계 그리고 개발도상국의 지역 이해를 진전시키는 활동을 통해 보다 완성도와 확장 가능성을 높여 줄 것이다.

3. 교류와 관계 협력 관계(partnership), 상호 관계(reciprocity)

해외봉사활동은 참가자들이 개인의 경험과 능력을 높여려는 목적이 강하고, 개발봉사와 관련한 사전 교육의 부족 등으로 개발도상국 현장에서 동정적 입장을 보이는 경우가 빈번하다. 이러한 경향은 해외봉사활동을 기존 대량 관광과는 다른 새로운 경험을 기대하는 수요에 부응해 민간과 시민 단체에서 개발봉사로 홍보하며 실제로는 상품화된 봉사여행으로 운영하며 더욱 심화되었다는 비판을 받는다. 영국에서는 봉사여행의 확대를 경고하며 윤리적 봉사가이드를 제작하여 배포하기도 했다

데, 핵심 내용으로 여행 이전 봉사자 교육 시행, 지역 사회와 협력하는 활동, 봉사활동 프로젝트의 지속성 등을 담고 있다(Atkinson, 2017).

해외봉사활동은 민간 부문의 산업으로 확대되며 참가자는 자신의 입장을 세계의 불평등 상황에서 비판적으로 인식하지 않는 경우, 의도하지 않더라도 지역 사회에 피해를 주고 주민들에게 우월적으로 접근하는 태도를 드러내게 되며 긍정적 관계를 형성하기 어려운 상황으로 전개될 가능성이 높다. 개발협력 사업을 위해 파견된 전문가들은 책임과 권위를 가지고 지역 주민과 접촉하기 때문에 거리감이 있지만, 단기 봉사의 현장 활동은 참가자가 지역 주민과 직접 접촉하고, 개발협력 사업에 비해 성과 도출의 압박이 적어 지역 주민과의 교류를 통한 지식과 경험 공유의 기회를 자주 가질 수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해외봉사활동의 사전 교육은 봉사여행과 개발봉사를 구분하고, 참여 목적을 동정과 정의로 대별하여 이해시킴으로써 참가자 스스로 자신들의 현장 활동을 검토하는 준거 틀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

봉사활동 참가자들은 지역 주민의 집에서 생활하고, 지역 주민의 수준에 맞추어 생활을 유지하며, 지역 사회의 일에 참여하며 열린 소통을 한다면 개발도상국에 대한 정확화된 이미지를 바로잡고 상호문화 이해 능력을 높이는 기회가 된다(Everingham, 2015; Wearing *et al.*, 2017). 봉사활동 참가자는 도움을 준다는 특권에서 평등의 상황으로 변화를 경험하면서 다양한 세계와 현실이 공존하며 동등하게 가치가 있다는 것을 인식하는 기회를 가질 수 있다. 봉사활동이 일회성의 단기일 때 서로 자신의 혜택을 극대화하려 하는 성향을 보이는 동등한 척도로 서로 호혜적이기 쉽지 않는데, 이러한 문제는 정

기적인 활동을 동일한 지역에서 전개하여 반복적인 상호 작용을 유지한다면, 물리적 거리는 가깝게 느껴지고, 문화적 이해, 언어 장벽 등의 관계 형성의 장애를 극복하며 효과적인 소통과 교류는 가능하게 해줄 것이다(Lough and Oppenheim, 2017).

해외봉사 참가자와 지역 주민 간 열린 지속적인 대화는 상호 동반 관계(relational reciprocity)를 형성해 상호 문화 교환과 학습을 가능하게 해 공감과 신뢰를 쌓게 한다. 이러한 상호 작용을 통해 경험, 문화 특수적인 지식과 능력을 공유하는 활동은 빠르게 신뢰를 구축하고, 새로운 관계를 안정시키는 능력을 가진다(Chen, 2018). 교류를 통한 협력, 상호 관계 형성은 지역 사회를 중심에 두는 접근으로 당연함에도 불구하고 부족했고, 지역 주민을 수혜자로 취급하는 것에서 자신들의 개발에 능동적인 사람들로의 인식 전환도 필요하다. 단기 해외봉사는 일회성으로 참가자들이 지역 사회의 의견을 무시하고 현지 상황에 적절하지 않은 외부 지식의 적용 등의 문제를 가지는데, 정기적으로 같은 지역을 반복적으로 방문해 단기 활동이 가지는 한계를 극복할 수 있다. 오랜 시간 동안 형성된 상호 동반 관계는 권력 관계의 불균형을 감소시키고 효과 있는 상호적 협력을 가능하게 해준다. 봉사 참가자의 지역 사회 적응(embeddedness)은 각자의 자세, 지식에 대해 서로 칭찬하며 협력으로 이끌며 신뢰 구축과 지도력 향상과 같은 연성적 결과를 만들어 낼 수 있고, 이러한 관계의 지속은 무형의 지속가능한 성과를 만드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Schech *et al.*, 2018). 반복적 상호 작용을 통한 긍정적인 상호 동반 관계는 상호 혜택 관계(mutual benefit)로 이어질 때 더욱 지속성을 담보할 수 있다. 봉사활동이나 개발협력은 공여자

표 4. 해외봉사활동의 상호 관계 스펙트럼

	낮은 상호 관계	높은 상호 관계
상호 동반 관계 (relational reciprocity)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효과적인 소통 불가능(언어, 물리적 거리, 문화적 오해 등) · 특권의 상황(예, 해외봉사자끼리 생활하며 활동, 높은 비용의 생활) · 일회성 상호작용, 단기 활동, 일회성 봉사자 배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효과적인 소통 능력 · 평등의 상황(예, 지역 주민과 생활하며 활동, 낮은 비용의 생활) · 반복적 상호작용, 장기 활동, 반복적 봉사자 배치
상호 혜택 관계 (mutual benefit)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비용과 혜택의 불균형 · 공급 지향(봉사자 공급 > 수요) · 봉사자, 지역 사회의 불균등한 이익 · 봉사자 중심의 학습 · 지속성과 동료 관계 부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비용과 혜택의 균형 · 봉사자의 시장 균형(공급=수요) · 모든 이해관계자의 전략적 상호 이익 · 상호 학습 · 지속성과 동료 조직 관계

* Lough and Oppenheim(2017)을 재구성.

와 수혜자라는 비대칭적인 관계, 물질적 불평등, 권력 불균형을 내포하고 있어, 현실적으로 상호 혜택의 관계로 발전시키기는 쉽지 않다. 봉사자와 지역 사회는 기본적으로 불균등한 관계이기에 두 집단이 평등한 동반 관계를 만들며 서로 모두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관계로 나아가야 할 필요가 있다. 전통적인 불균형의 관계는 참가자가 지역 사회에서 생활하며 받는 혜택을 의도적으로 그리고 구체적으로 교육적 측면과 연계시키며 강조함으로써 호혜적 관계로 변화시킬 수 있다. 여기에는 봉사활동과 대상 지역 간의 비용과 혜택을 양적인 동등한 가치(equal value) 척도보다 정당한 가치(fair value)로 비교하고, 경제적보다 비경제적 교환 가치를 고려해야 한다. 실제 많은 봉사 참가자들이 준 것보다 많은 것을 얻었다고 말하는 비물질적인 혜택 그리고 새로운 문화와 언어 학습의 기회를 혜택으로 지역 주민 참여에 대한 보상으로 계상하며 지역 사회와의 상호 혜택 관계를 강조할 필요가 있다(Lough and Oppenheim, 2017).

해외봉사활동은 지역 주민과의 교류를 통해 친밀한 상호 관계를 형성하며 동반적 역량 개발로 이어지고 호혜적 관계로 발전시키며 아래로부터의 변화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Everingham, 2015; Chen, 2018). 지역 주민과의 상호 관계 형성은 존중과 신뢰를 실현하는 타자를 인정하는 봉사활동의 탈상표화, 탈식민적 접근이며, 참가자의 변혁적 경험과 지역 사회의 참여와 더불어 상호 혜택의 관계를 향상시키며 형성성 있는 결과로 나아가게 해준다. 이러한 봉사 참가자와 지역 사회 구성원이 상호작용 하며 만들어가는 관계를 지속가능하게 만들어 가기 위해서는 이러한 관계가 만들어지고, 만들어내는 다양한 지역 현장의 모습에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봉사활동이 이루어지는 지역은 주어지 있는 배경이 아니라 독자적인 지리적 특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봉사자와 지역 공동체의 상호작용에는 물질적, 문화적 갈등이 존재하며 이들이 타협하며 관계를 형성하는 현장은 다양하고 역동적인 지리를 보인다. 따라서 개발도상국 지역에 대한 이해는 참가자의 경험 학습과 지역 사회의 발전 양자를 모두 얻을 수 있는 봉사활동의 실천을 위해 중요하다.

4. 개발도상국의 이해와 지역 지식

해외봉사, 특히 대학생 활동은 동정에서 정의의 안목으로 접근하는 것이 중요하다면, 실천적 차원에서는 활

동 대상 개발도상국 지역 이해를 위한 노력을 필요로 한다. 해외봉사활동은 우선 세계 빈곤 문제를 들여다 볼 수 있는 안목과 이를 현지에서 경험하며 이해하는 노력과 실천이 병행될 때 성공적이라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단기 봉사여행을 주도하는 기업이나 개발 NGO들은 단체를 홍보하고 수익을 추구하는 봉사단을 운영하며 참가자들의 만족을 우선순위에 두고 현지의 문화, 관습과 의견은 중요하게 고려하지 않는 일방적인 접근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1960년대부터 발전 국가를 중심으로 개발도상국을 대상으로 시작된 봉사활동에 대한 국제 규범을 이해하고 세계시민의식을 갖추는 것이 특히 봉사여행으로 변질된 청년층 단기 해외봉사활동을 개발봉사로 이해시키기 위한 사전 교육으로 중요하다. 대학생 단기 해외봉사는 참가자의 경험과 경력 만들기를 위해 이루어지지만 다른 문화에 대한 존중, 빈곤, 인권, 평화 등 다양한 전 지구적 이슈에 대해 현장 경험을 통해 이해력을 높이며 자기 성장을 도모하는 기회로 고려할 수 있다. 참가자들은 그 출발점으로 활동의 구상과 실행 과정에서 봉사 대상지 주민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활동을 전개하며 현지의 주민, 학교, 기관을 수혜자가 아닌 동반자로 인식하는 태도를 가지는 것이 필요하다.

봉사활동 분야에 대한 전문성 또한 자질과 자세를 갖춘 사람을 선발하거나 준비 교육을 통해 강화할 필요가 있는데, 이를 체험을 통해 습득하는 방법은 현지에서 물품을 구입하고, 현지 가정에서 숙식하며 언어 습득을 포함한 지역 이해와 수요를 파악하는 노력을 기울일 수 있다. 단기 봉사의 경우 같은 대상 지역에서 정기적으로 활동을 펼치는 것이 권고되고 있어 기존 파악된 지역의 수요와 역량 그리고 이미 형성되어 있는 관계의 정보와 지식을 이어받아 지속시킬 필요가 있다.

대학생 해외봉사활동은 교육 봉사가 주를 이루는데 현지에 학습 기회를 제공하는 것과 더불어 제공받는다는 측면의 인식과 접근 또한 중요하다. 경험 학습이라는 측면에서 교육 내용을 현지에 대한 이해 없이 일방적으로 정하는 것보다 사전에 개발도상국 전반 그리고 특정 대상 국가와 지역의 지리, 경제, 역사, 문화 등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검토하며 전반적 상황에 대한 이해를 도모하는 것이 필요하다. 세부적으로는 현지의 교과서를 분석하며 가능하면 이념적, 정치적, 사회적으로 민감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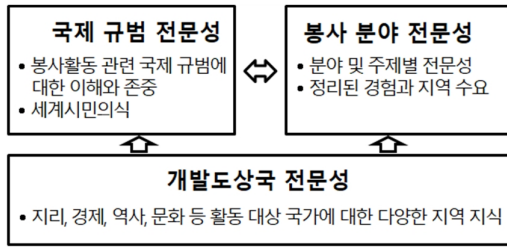


그림 1. 해외봉사활동의 삼위일체⁷⁾

주제를 구분하여 배제하고, 객관적이고 가치중립적인 주제나 내용을 중심으로 다루는 것이 필요하고, 이들 내용을 한국의 교육 내용과 비교하며 수업 준비를 한다면 참가자, 대상자 모두에게 도움이 될 것이다.⁸⁾ 해외 현장에서는 사전에 숙지한 내용과 상황 특히 개발도상국은 알려진 정보가 부족해 사실보다는 왜곡되어 있는 경우가 많아 학생, 주민과의 교류를 하며 확인하며 실제적 이해를 도모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현장에서의 실천에서 해외봉사가 교류를 통해 관계를 형성하고 협력 관계로 이어지려면 소통의 문제를 극복해야 한다. 직접 소통이 어려운 지역은 통역가, 전문가를 동행해야 하는데 이럴 경우 참가자나 지역 주민 모두가 주도적으로 활동하는데 많은 제약이 따르게 되고, 외부인의 개입으로 상업화되어 봉사활동이 과장된 봉사여행으로 변질될 가능성이 높아진다. 언어 습득은 오랜 노력과 시간을 필요로 해 경험적으로 영어로 소통이 가능한 나라를 선택한다면 상호 오해를 최소화하는 방법일 수 있다. 영어 사용국에서 봉사활동을 시작하여 점차 다른 문화에 이해와 문화 소통 능력이 높이며 여러 국가로 확대를 시도할 수 있다. 단기 활동이더라도 정기적으로 반복하는 활동을 통해 장기적인 안목에서 교류와 협력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한재광, 2009; Lough and Oppenheim, 2017).

개발도상국 전문성은 최근 후기발전과 탈식민적 접근에서 발전의 의미를 경제와 소득수준 등의 시장 가치만이 아닌 공공재와 공동체 경제 등의 다양한 가치 재발견을 통한 대안적 개념과 실천 아이디어를 제시하며 지속 가능한 개발을 추구하는 변화를 보이고 있다(Willis, 2014; 이용균, 2015; 손희상 등 역, 2016). 대다수 개발도상국이 경험한 정부와 시장의 실패는 대안적으로 공동체의 잠재적 역할에 대한 관심을 높이는 계기를 마련했다. 현실적으로 많은 개발도상국, 특히 농촌 지역은 아직 소득

개념이 미약하고, 마을 공동체 단위의 비공식 경제가 도덕 경제의 성격을 가지며 중요하게 작동한다. 이는 개인의 이익 추구보다 선하고 공정한 행위를 사회적 규범으로 주류적 개발 접근이 강조하는 물질적 향상에 대한 강조만큼이나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한다. 더불어 지역 공동체나 빈곤 가구가 무엇이 부족한가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가지고 있는 것과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인식하고 가능성의 관점에서 접근하는 것을 강조한다(Oxfam Australia, 2008; 김권호·권상철, 2018).

개발도상국 지역 이해는 기본적으로 동정적, 신식민적이 아닌 정의적, 탈식민적 가능성으로 접근하는 것이 해외봉사활동의 질적 개선을 위해 중요하다. 현지에서 지역의 다양성에 관심을 기울이며 가능성을 찾아보는 조사 활동을 운영해 보는 것은 개발도상국 전문성을 높이는 좋은 프로그램이 될 수 있다. 현지 조사 활동은 주민과의 교류, 소통이 이루어지는 기회를 제공할 것으로 오랜 세월동안 환경에 적응해 온 현지의 생활양식과 문화에 배태되어 있는 지역 지식을 이해하는 시도는 참가자들에게 타자에 관심을 기울이는 탈식민적 관점의 습득으로 이어지며, 재현이 아닌 현실의 개발도상국을 볼 수 있는 안목을 기르는 기회를 제공할 것이다(이영민·박경환 역, 2011; 박경환, 2018).

최근 급격히 증가하는 해외봉사활동은 청년층이 주류를 이루고 개발봉사와 봉사여행 형태로 혼재되어 나타나며 질적 측면에서 방향 정립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해외봉사는 기존 개발봉사에서 비롯된 동정적 입장을 넘고 봉사여행에서 나타나는 상품화된 봉사가 아닌, 자원 참가자와 대상 지역 주민이 교류하며 관계를 형성하고 호혜적인 상호 학습 기회로 나아가야 할 필요가 크다. 해외봉사는 기본적으로 우리 주변의 상상된 세계를 실제 경험하며 동정적, 식민자적 편견 없이 재구성할 필요를 충족시켜주는 활동으로, 개발도상국의 단순하고 고정된 재현의 지리를 복잡하고 유동적인 현실의 지리로 재정립하며 가능성의 지리를 만들어 가는 기회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

IV. 요약 및 결론

해외봉사활동은 지난 20년간 급격한 증가를 보이고 있는데, 그 시작은 1960년대 발전 국가가 중심이 되어

개발도상국의 빈곤 문제를 경감시키기 위한 해외원조 사업의 일부로 청년층 파견이 주류를 이루며 정부의 지원으로 확대되었다. 이후 경제 침체와 더불어 나타난 신자유주의 상황에서 정부 지원을 대신하여 민간 기업 및 시민단체가 주요 해외봉사활동 제공자로 등장하며 참가자 개인 차원의 현장 경험과 역량 강화 수요에 부응하는 단기 봉사여행 형태가 주류를 이루고 있다. 이러한 과정에서 해외봉사는 가난과 빈곤 문제를 해결하는 활동으로 간주하며 현지 주민들은 단순히 참가자의 감동과 경험을 위한 그리고 봉사과 수혜의 대상으로만 설정되어 있고 개발도상국 현지는 단순한 활동 대상으로만 고려하는 경우가 빈번하다.

청년층 단기 해외봉사활동은 세계의 불균등 발전에 대한 개발봉사의 성격으로 시작되었으나, 최근에는 신자유주의의 확대로 정부 관여와 지원은 축소되고 민간 단체 주도의 활동이 확대되었으며 개인주의의 확대, 취업 관련 기술 수요 등의 전반적 사회경제 상황과 더불어 점차 개인의 해외 경험과 경력을 획득하는 기회로 간주하는 봉사여행 형태로 변모하는 양상이 두드러진다. 여기에 민간단체들은 해외봉사활동을 참가자들에게 세계에 대한 책임과 차이를 만드는 행동 실천의 봉사 기회이면서 즐겁게 세상을 관광하는 상품으로 홍보하며 참가자를 확보해 증가 일로에 있다. 이러한 홍보에는 개발도상국의 현실을 극악한 가난 등의 표어나 이미지로 왜곡하고, 참가자들은 자신의 경력 만들기를 목표로 대상 지역에 대한 이해 없이 현지에서 큰 차이를 만들고 있다는 착각을 하는 신식민적 사고와 태도를 배양하는 계기가 되는 위험도 내포하고 있다. 해외 봉사여행의 신식민적 성격은 우위의 서구와 열위의 비서구의 이분법적 세계관인 오리엔탈리즘이 배경에 자리 잡고 있어, 현재에도 정보나 지식이 많지 않은 개발도상국을 가난하고 기술 수준이 낮아 다른 나라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대상으로 인식하고 있다. 단기 참여의 봉사활동은 이러한 기존의 정형화된 이미지를 확인하는 수준에 머무르거나 더욱 고착화시키는 역할을 한다. 참가자는 해외봉사를 표방된 '차이 만들기'를 위한 활동으로 인식하거나 그렇다고 교육받고, 이를 위해 시혜적인 태도를 가지며 우월감을 드러내는 경우가 많다. 개발도상국에 대한 편견은 정보 부족이 아닌 관점의 결핍으로 해외봉사활동 질적 향상을 위해 개선을 필요로 한다.

한국의 해외봉사활동은 짧은 기간에 급격히 증가하여

그 의미와 방향에 대한 관심과 검토가 부족한 편으로, 초기 개발봉사에서 봉사여행으로의 변모에 대한 비판을 수용하며 바람직한 방향을 모색해 참가자와 대상 지역 사회가 모두 혜택을 보는 상황으로 만들어 갈 필요가 있다. 해외봉사의 상업화와 신식민적 성향은 단기 활동에서 두드러지는데,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프로그램들이 많고 단기가 수적으로 우세해 혜택보다는 피해를 줄 가능성이 높은 한계를 가지고 있어 이를 인지하고 활동을 전개할 필요가 있다. 해외봉사활동은 현실적으로 참가자의 인식과 실천이 중요한 출발이기에 기본적 입장을 동정보다는 정의로 관점을 변화시킬 필요가 있는데, 그 가능성은 실제 해외봉사활동보고서에서 일부 포착할 수 있다.

대학생 단기 현장 활동은 성과 도출의 압박이 적고 참가자가 지역 주민과 빈번히 접촉하며 교류를 통한 지식과 경험 공유의 기회를 가질 수 있으며, 이는 개발도상국 지역과의 공감, 동반자적 관계의 형성으로 이어질 수 있다. 단기의 일회성 해외봉사의 한계는 정기적으로 같은 지역을 반복적으로 방문해 보완할 수 있다. 또한 지역 주민과의 밀착 생활은 상호문화 이해를 높이며 개발도상국에 대한 정형화된 이미지를 바로잡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개발도상국 지역에 대한 이해는 해외봉사활동의 질적 개선을 위해 또한 중요하데, 부족보다 가능성에 초점을 맞추는 접근이 필요하다. 그리고 현지 조사 활동은 오랜 동안 환경에 적응해 온 현지의 생활양식과 문화에 배태되어 있는 지역 지식을 찾는 노력으로 현실의 개발도상국을 볼 수 있는 안목과 타자에 관심을 기울이는 탈식민적 태도를 갖출 수 있게 해준다. 해외봉사는 실제 경험을 통해 편견 없는 세계를 만들어가는 새로운 가능성의 지리를 만들어가는 소중한 활동으로 진행되어야 한다.

註

- 1) 해외원조(foreign aid)와 국제개발협력(international development cooperation)은 혼용되어 쓰이기도 하고 서구의 발전국가는 해외원조, 신흥 원조 공여 국가들은 국제개발협력 사용이 보편적인데, 기본적으로 하향식 도움 대비 수평적 협력이라는 입장의 차이가 핵심이다(Mawdsley, 2012).
- 2) OECD 개발원조위원회 다른 공여국 대다수는 2% 이하 수준이고, 영국이 5%, 일본이 3% 정도로 비교

적 높은 편이다(최명근·구영은, 2016).

- 3) 개발봉사와 봉사여행을 활동기간별로 구분하여 목표를 설정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있는데, 장기의 경우 개발협력 사업, 단기의 경우 개인 체험과 경력을 우선시 하는 것이 혼란을 줄이고 활동을 효과적으로 진행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양자 모두 개인 차원에서는 변혁적 학습 기회라는 것에서는 같은 입장이다(Tiessen, 2018).
- 4) 해외봉사활동의 성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참가자들이 보편적으로 가지는 자선(charity) 또는 호의(affection)에 기초해 북부국가가 가진 권력과 특권의 불평등을 넘어서는 새로운 주체성의 형성을 강조하는 발전 방안이 제시되기도 한다(Griffiths, 2018).
- 5) 해외봉사 관련 조사에서 캐나다의 경우 남녀로 구분하여 실시한 설문 결과도 제시하는데, 1순위에서 특히 차이를 보여 여자의 경우 상호 문화 이해, 남자는 전공과 경력 경험으로 나타난다. 설문 결과가 참가자의 성과 위주로 나오는 이유는 대다수의 연구들이 해외활동의 성과를 재정 투입에 따른 결과 중심으로 파악하는 봉사활동 자체에 대한 평가만이 이루어지기 때문으로, 봉사활동의 성과에 참가자의 변화와 더불어 대상 지역의 변화 또는 혜택도 포함하는 조사 범위의 변환이 필요하다(Wearing *et al.*, 2017; Chen, 2018). 이러한 편협적인 조사는 연구 목적 외에도 해외봉사에 대한 안목의 부족도 고려할 수 있고, 기타 참가자는 구체적이지만 활동 지역의 대상자는 구체적이지 않아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해야 하는 문제, 언어 소통의 문제 등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 6) 경북대학교(2012)와 제주대학교(2017)는 해외봉사활동 결과보고서를 인터넷에 공개하고 있다.
- 7) 김은미(2012)의 국제개발협력의 삼위일체 내용을 해외봉사활동 상황으로 변형한 모델로, 국제개발협력에서는 개발 분야 전문성, 개발도상국 전문성, 그리고 국제 규범 전문성을 동일한 비중으로 고려하며 국제 규범을 상단에 위치시켜 중요시하였으나, 해외봉사활동의 경우 개발도상국 전문성을 가장 비중 있게 보고 하단에 위치시켜 기초적인 요소로 강조하였다.
- 8) 참고로 스리랑카의 경우 Sri Lanka Education Publications Department 인터넷 페이지에서 전

과목의 모든 학년 교과서를 싱할라어, 영어, 그리고 타밀어로 다운로드 받을 수 있다.

참고문헌

- 강종안·김동훈·양진아·이선재·하재웅·한재광, 2009, 「자원활동은 자원봉사가 아니다: 국제자원활동 매뉴얼」, 서울: 유네스코한국위원회.
- 경북대학교, 2012, 「2012학년도 하계 경북대학교 해외봉사활동 보고서 We are Vietmen!」.
- 권상철, 2016, “해외자원활동과 글로벌교육의 방향 모색: 제주대학교 해외봉사활동을 사례로,” *문화역사지리*, 28(4), 86-100.
- 김권호·권상철, 2018, “개발도상국 농촌의 재현과 현실: 캄보디아 농촌 마을 사례,” *한국지역지리학회지*, 24(3), 341-358.
- 김다원·한건수, 2012, “‘사실’과 ‘재현’의 관점에서 아프리카 다시 보기: 초·중학교 사회 교과서 아프리카 서술 내용을 중심으로,” *대한지리학회지*, 47(3), 440-458.
- 김동훈, 2012, “국제개발협력의 인문학: 국제사회복지현장에 대한 성찰적 접근,” *국제사회복지학*, 2(1), 67-91.
- 김옥선, 2015, “여행 서사에 나타난 오리엔탈리즘과 지역 식민화: 1990년대 여행 서사를 중심으로,” *로컬리티인문학*, 14, 165-194.
- 김은미, 2012, 「우리나라의 공적개발원조(ODA) 추진방향 연구」, 한국국제협력단.
- 김지만·김예란, 2013, “고독과 빈곤의 조우, 혹은 환대의 경계: 한국 대학생 봉사 여행에서의 주제 형성에 대한 소고,” *문화와 사회*, 14, 7-50.
- 박경환, 2018, “포스트식민 여행기 읽기: 권력, 욕망 그리고 재현의 공간,” *문화역사지리*, 30(2), 1-27.
- 박공식·전현욱, 2018, “M대학교 학생들의 볼리비아 해외교육봉사활동 전개 방식에 대한 비판적 고찰,” *교육인류학연구*, 21(1), 83-118.
- 박주현, 2008, “21세기 한국 여행기에 드러나는 오리엔탈리즘: 인도 여행기와 뉴욕 여행기를 중심으로,” *비교문학*, 45, 165-188.
- 손혁상·엄은화·이영민·허남혁 역, 2016, 「개발도상국과 국제개발: 변호하는 세계와 새로운 발전론」, 서울: 푸른길(Williams, G., Meth, P., and Willis, K., 2014, *Geographies of Developing Areas: The Global South*

- in a Changing World*, New York: Routledge).
- 유인선, 2014, “해외봉사활동은 왜 실패하지 않는가: 필리핀 마닐라 톤도 지역의 사례를 중심으로,” 고려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이영민·박경환 역, 2011, 「포스트 식민주의의 지리: 권력과 재현의 공간」, 서울: 여이연(Sharpe, J., 2009, *Geographies of Postcolonialism: Spaces of Power Representation*, Los Angeles: SAGE).
- 이옥순, 2003, 「우리 안의 오리엔탈리즘: ‘인도’라는 이름의 거울」, 서울: 푸른역사.
- 이용균, 2015, “신자유주의 개발의 상상력과 포스트개발: 공유경제를 중심으로,” *한국지리학회지*, 4(2), 293-306.
- 제주대학교, 2017, 「제주대학교 해외봉사활동 결과 보고서」.
- 조문영, 2013, “공공이라는 이름의 치유: 한 대기업의 해외 자원봉사활동을 통해 본 한국 사회 ‘반(反)빈곤’과 ‘대학생’의 지행도,” *한국문화인류학*, 46(2), 45-91.
- 조혜영, 2015, “국제이해교육 관점에서 살펴 본 대학생 해외봉사활동 경험: 의미와 한계,” *국제이해교육연구*, 10(2), 1-43.
- 주성수·조영호·이란희·김이경, 2016, 「해외봉사단 효과성 증진을 위한 봉사단 분야별, 직종별 추진전략」, 성남: 한국국제협력단.
- 주재홍·김영천, 2010, “학교의 국제이해 교육과정에 대한 탈식민주의적 비평,” *교육과정연구*, 28(3), 27-55.
- 최명근·구영은, 2016, 「해외봉사단원과 국제개발협력」, 성남: 한국국제협력단.
- 하재웅, 2009, “우리는 왜 해외봉사단에 주목하는가? KOICA의 봉사단 사업을 만나다,” ODA Watch, 12, ODA Watch, 제12호(www.odawatch.net).
- 한국국제협력단, 2013, 「해외봉사활동 수기 공모전 ‘나의 해외봉사 활동 이야기’」.
- 한재광, 2009, “우리는 왜 해외봉사단에 주목하는가? 단기 해외봉사단 사업,” ODA Watch, 제17호(www.odawatch.net).
- Andreotti, V, 2007, *The Contribution of Postcolonial Theory to Development Education*, London: DEA Thinkpiece.
- Atkinson, A.L., 2017, Global Justice Awareness? The Journey towards Transformational Learning through International Volunteering, Ph.D. Dissertation, School of Language, Social and Political Sciences, University of Canterbury, Australia.
- Blum, A. and Schafer, D., 2018, Volunteer work as a neo-colonial practice: Racism in transnational education, *Transnational Social Review*, 8(2), 155-169.
- Chen, J., 2018, Understanding development impact in international development volunteering: A relational approach, *The Geographical Journal*, 184, 138-147.
- Devereux, P., 2008, International volunteering for development and sustainability: Outdated paternalism or a radical response to globalisation? *Development in Practice*, 18, 357-170.
- Dogra, N., 2014, *Representations of Global Poverty: Aid, Development, and International NGOs*, London: I.B. Tauris.
- Everingham, P., 2015, Intercultural exchange and mutuality in volunteer tourism: The case of intercambio in Ecuador, *Tourist Studies*, 15(2), 175-190.
- Franco, E. and Shahrokh, T., 2015, The changing tides of volunteering in development: Discourse, knowledge and practice, *IDS Bulletin*, 46(5), 17-28.
- Griffiths, M., 2018, Writing the body, writing others: A story of transcendence and potential in volunteering for development, *The Geographical Journal*, 84, 115-124.
- Laurie, N. and Smith, B.M., 2018, Unsettling geographies of volunteering and development, *Transactions of the Institute of British Geographers*. 43, 95-109.
- Long, C., 2017, Volunteering in Development: Analysing and Comparing Branded Representation of the Australian Government’s Australian Volunteers for International Development Program and Volunteer Perspectives, Master’s Dissertation, Communication for Development, Malmo University, Sweden.
- Lough, B., 2015, *The Evolution of International Volunteering*, Bonn: United Nations Volunteers (<https://forum-ids.org/wp-content/uploads/2015/11/The-Evolution-of-International-Volunteering.pdf>).
- Lough, B. and Oppenheim, W., 2017, Revisiting reciprocity in international volunteering, *Progress in Development Studies*, 17(3), 197-213.
- Mawdsley, E., 2012, The changing geographies of foreign aid and development cooperation: Con-

- tributions from gift theory, *Transactions of the Institute of British Geographers*, 37, 256-272.
- McGehee, N.G., 2012, Oppression, emancipation, and volunteer tourism: Research Propositions, *Annals of Tourism Research*, 39(1), 84-107.
- McGloin, C. and Georgeou, N., 2016, 'Looks good on your CV': The sociology of voluntourism recruitment in higher education, *Journal of Sociology*, 52(2), 403-417.
- Mostafanezhad, M., 2013, The geography of compassion in volunteer tourism. *Tourism Geographies*, 15(2), 318-337.
- OECD, 2018, *OECD Development Co-operation Peer Reviews: Korea 2018*, Paris: OECD Publishing.
- Oxfam Australia, 2008, *A Citizen's Guide to the Greater Mekong Subregion*, Melbourne: Oxfam Australia.
- Palacios, C.M., 2010, Volunteer tourism, development and education in a postcolonial world: Conceiving global connections beyond aid, *Journal of Sustainable Tourism*, 18(7), 861-878.
- Palmer, M., 2002, On the pros and cons of volunteering abroad, *Development in Practice*, 12(5), 637-647.
- Perold, H., Graham, L.A., Mavungu, E., M., Cronin, K., Muchemwa, L., and Lough, B.J., 2013, The colonial legacy of international voluntary service, *Community Development Journal*, 48(2), 179-196.
- Schech, S., 2017, International volunteering in a changing aidland, *Geography Compass*, 11(12), 1-13.
- Schech, S., Skelton, T., and Mundkur, A., 2018, Building relationships and negotiating difference in international development volunteerism, *The Geographical Journal*, 184, 148-157.
- Simpson, K., 2004, 'Doing development': The gap year, volunteer-tourists and a popular practice of development. *Journal of International Development*, 16(5), 681-692.
- Sin, H.L., 2010, Who are we responsible to? Locals' tales of volunteer tourism. *Geoforum*, 41, 983-992.
- Smith, B.M. and Laurie, N., 2011, International volunteering and development: Global citizenship and neoliberal professionalisation today, *Transactions of Institute of British Geographers*, 36, 545-559.
- Sobocinska, A., 2017, How to win friends and influence nations: The international history of development volunteering, *Journal of Global History*, 12, 49-73.
- Tiessen, R., 2018, *Learning and Volunteering Abroad for Development: Unpacking Host Organization and Volunteer Rationales*, London: Routledge.
- Travers, S., 2014, Getting the most out of studying abroad: Ways to maximize learning in short-term study trips, in Tiessen, R. and Huish, R., eds., *Globetrotting or Global Citizenship? Perils and Potential of International Experiential Learning*, Toronto: University of Toronto Press, 198-208.
- Wearing, S., Young, T., and Everingham, P., 2017, Evaluating volunteer tourism: Has it made a difference? *Tourism Recreation Research*, 42(4), 512-521.
- Willis, K., 2014, Development: Geographical perspectives on a contested concept, *Geography*, 99(2), 60-66.
- Yea, S.Y., Sin, H.L., and Griffiths, M., 2018, International volunteerism and development in Asia-Pacific, *The Geographical Journal*, 184, 110-114.
- 한국대학사회봉사협의회, www.kucss.or.kr
- Sri Lanka Education Publications Department, <http://www.edupub.gov.lk>
- 교신 : 권상철, 63243,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제주대학교 102, 제주대학교 사범대학 지리교육전공 (이메일: kwonsc@jejunu.ac.kr)
- Correspondence : Sangcheol Kwon, 63243, 102 Jejudae-hak-ro, Jeju-si, Jeju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e, Korea, Major of Geography Education, College of Education, Jeju National University (Email: kwonsc@jejunu.ac.kr)

투 고 일: 2018년 11월 23일
 심사완료일: 2018년 12월 3일
 투고확정일: 2018년 12월 10일

